

# 東南海岸地方의 傳統的 祖上崇拜信仰 연구

황 경 숙\*\*

## 차 례

- |  |                              |
|--|------------------------------|
| 1. 들어가기(序言)                              | 2-4. '조상당세기'와 '시준단지'의 형성과 전개 |
| 2. 개별적 조상숭배 대상으로서의 '조상당세기(조상지)' 와 '시준단지' | 3. 대동적 조상숭배의례로서의 헌식굿과 밭상제    |
| 2-1. 조상당세기와 조상지                          | 4. 마무리(結論)                   |
| 2-2. 시준단지(세준단지)                          | 참고문헌                         |
| 2-3. 제석단지와 조상단지                          | 부록 -[민속 자료편]                 |

## 1. 들어가기(序言)

조상숭배(祖上崇拜)에 내재해 있는 종교적(宗敎的) 심성(心性)과 제의적(祭儀的) 표상(表象)은 그 민족의 원형적(原型的) 사유관(思惟觀)의 중핵(中核)으로, 그 민족의 조상숭배문화(祖上崇拜文化)에 대한 이해는 곧 그 민족의 정체성(正體性)을 밝히는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그간 한국의 조상숭배문화에 관한 연구는 유교적(儒敎的) 제례문화(祭禮文化)에 국한하여 논의되는 편파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교의 제례문화가 고려 말에 유입되어 조선 중기에 규범적(規範的) 제례형식(祭禮形式)으로 정착된 이래 한국의 민간신앙(民間信仰)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다. 그러나, 한국인의 심성에 내재해 있는 전통적 조상숭배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코 유교적 제례문화(祭禮文化)에 국한하여 논의할 수만은 없다. 상고시대부터 장속의례(葬俗儀禮)로 형성 전승되어온 한국 고유의 조상숭배문화의 전통에 먼저 주목해야 함은 주지하는 바다.

유교 이전의 전통적 조상숭배문화의 현상을 규명하고자 한 선행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능화(李能和)<sup>1)</sup>·아끼바 다카시(秋葉 隆)<sup>2)</sup>·장주근(張籌根)<sup>3)</sup>·최길성(崔吉城)<sup>4)</sup>의 논저들은 유교 이전의 전통적 조상숭배문화에 대한 전통을 규명하고자 한 논저로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연구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보일 뿐 아니라, 조상숭배의 개념 규정에서 오류를 보임으로써 연구 대상 범위의 설정에서는 물론 논지의 전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 왔다.

선행연구의 논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 지금까지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조상숭배문화들을 발굴하여 연구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데 주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의 대상 범위나 연구 시각의 온당성 여부를 되짚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상숭배(祖上崇拜)의 범위(範圍)를 혈연성(血緣性)을 전제(前提)로 한 선대(先代)의 사령숭배(死靈崇拜)로 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첫째, 유교적(儒教的) 사당문화(祠堂文化)의 민속적 현상으로 인식해왔던 ‘조상당세기(祖上箱子)’와 ‘조상지(祖上紙)’ 모시기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어 ‘조상당세기’와 ‘조상단지(祖上韻)’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여 가신신앙(家神信仰)으로 전승되어온 한국의 전통적(傳統的) 조상숭배의례(祖上崇拜儀禮)의 특성과 조령관(祖靈觀)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그간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조상신에 대

---

1) 李能和, 李在崑 譯, 『朝鮮巫俗考』(東文選, 1991).  
 2) 秋葉隆, 『儒教以前の祖先崇拜』, 『朝鮮』, 1940.  
 3) 장주근, 「한국민간신앙의 조상숭배-유교 제례 이외의 전승 자료에 대해서-」, 『한국문화인류학』 15집(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 「무속의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18집(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 「민간신앙 속의 조상숭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2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예전사, 1982). · 「임자없는 조상제사의 현지연구」, 『비교민속학』 3집(비교민속학회, 1988). · 「한국 조상숭배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문화인류학』 제20집(한국문화인류학회, 1988).

한 제의가 지연공동체(地緣共同體) 단위의 공동제의로 확대된 사례를 제시하여, 혈연성을 바탕으로 한 개별 가정제이로서의 조상숭배의례문화와 함께, 혈연적 조상제이가 지연적으로 확대되어 대동제의로 재창출되는 조상숭배의례문화의 전통을 재조명함으로써 한국의 조상숭배문화의 다양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 2. 개별적 조상숭배 대상으로서의 ‘조상당세기(조상지)’와 ‘시준단지’

현전하는 가신신앙 중 한국의 전통적 조상숭배문화의 편린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신앙태로 ‘조상당세기(조상지)’와 ‘시준단지’ 신앙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전승과정에서 이들 신앙이 분화되어 각기 개별적으로 전승되는 사례로 말미암아 변별적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없지 않으나, 기실은 이 두 신앙태는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형성 전승되었던 것으로 그 역사적 연원은 동옥저 시대로 소급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조상당세기’와 ‘시준단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의례적 성격을 밝히고, 이들 신앙의 형성시기와 전개과정을 사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1. 조상당세기와 조상지

‘당세기’란 버들가지(柳枝)나 대살(竹片) 또는 찌리대와 같은 것으로 엮은 ‘동고리’를 지칭(指稱)하는 경상도(慶尙道) 방언(方言)이다. 이 당세기에 조상(祖上)의 신체(神體)로써 한지(韓紙)를 접어 넣거나 삼베조각을 넣어 ‘시준단지’ 옆에 모시는 것을 ‘조상당세기’라 하고, ‘조상당세기’와는 달리 ‘조상당세기’가 놓일 위치에 한지를 접어 벽에 붙인 것을 ‘귀신종이’라 한다. ‘조상당세기’는 지방에 따라 ‘구신(鬼神)당세기’ ‘선대 할배·할매당세기’라 하고, 단지의 경우는 ‘신주단지’ ‘몸오가리’ 등으로 칭한다. 그리고 조상지(祖上紙)는 지방에 따라 ‘조상’ ‘거장’ ‘귀신종이’ 등으로 칭한다. ‘조상당세기’에 대한 장주근(張籌根)의 현지

조사(現地調査)에 의하면, 아래의 사례 가운데 경북 영덕군의 [사례 1-②]가 ‘조상당세기’에, 진도군의 [사례 3-①]과 [사례 3-②]가 ‘신주단지’에 해당되며, 필자가 현지조사한 것에 의하면, 경북 포항시 흥해읍의 [사례 1-③], 포항시 장기면의 [사례 1-④], 포항시 대보면의 [사례 1-⑤], 경주시 양남면의 [사례 1-⑥]이 ‘조상당세기’에, [사례 1-⑦]을 비롯 [사례 2-①]~[사례 2-⑤]가 조상지에 해당된다.

- [사례 1-①] 함남(咸南) 함흥(咸興)의 명문 집안인 G가의 ‘조상고리’
- [사례 1-②] 경북(慶北) 영덕군(盈德郡) 영덕읍(盈德邑) 노물리(老勿里) 이상룡(李尙龍)댁의 ‘당세기’ [사례 1-③]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북구(北區) 흥해읍(興海邑) 죽천리(竹川里)의 ‘조상당세기’
- [사례 1-④]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남구(南區) 장기면(長鬐面) 모포리(牟浦里)의 ‘조상당세기’
- [사례 1-⑤]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남구(南區) 대보면(大甫面) 대천리(大川里)·강사(江沙)2리(里)(새기마을)의 ‘귀신당세기’
- [사례 1-⑥] 경북(慶北) 경주시(慶州市) 양남면 하서4리 진리마을의 ‘조상당세기’와 ‘조상종이’
- [사례 2-①]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남구(南區) 장기면(長鬐面) 계원(溪院)1리(里)의 ‘조상’
- [사례 2-②] 울산광역시(蔚山廣城市)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구신종이”
- [사례 2-③] 부산시(釜山市) 기장군(機張郡) 장안읍(長安邑) 효암리(孝岩里)의 ‘귀신종이’
- [사례 2-④] 부산시(釜山市) 기장군(機張郡) 일광면(日光面) 학리(鶴里)의 ‘귀신종이’
- [사례 2-⑤] 경남(慶南) 통영시(統營市) 한산면(閑山面) 매죽리(每竹里) 당금마을과 대항마을의 ‘거장’
- [사례 3-①] 전남(全南) 진도군(珍島郡) 진도읍(珍島邑) 사정리(射亭里) 박강단댁의 ‘몸오가리’
- [사례 3-②] 전남(全南) 진도군(珍島郡) 임회면(臨淮面) 굴포리(屈浦里) 곽(郭)

노인택의 '제석오가리'

위의 사례를 보면, 조상당세기의 경우 경북(慶北)의 [사례 1-②]~[사례 1-⑥]은 같은 형식이고, 전남(全南)의 [사례 3-①]은 오가리에 쌀을 넣는 것이 전남(全南)의 [사례 3-②]의 '제석오가리'나 '세존단지'와 같되, 조상 모심은 경북(慶北)의 [사례 1-②]~[사례 1-⑥]이 같다. 그리고 전남(全南)의 [사례 3-②]는 경북(慶北)의 '시준단지(세존단지)'와 같되, 조상 모심이라는 성격에는 별차이(別差異)가 없다.

이 '조상당세기'와 '조상지'는 '시준단지'와 함께 봉안되는데, 특히 경상북도 해안지역에서 강한 전승력을 보이고 있다. '조상당세기'와 '조상지' 모심은 조상신 중에서도 당시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신을 모셔 베푸는 제의임으로 '조상당세기'와 '조상지'에 봉안하는 대상 성격은 혈연적인 조령이다. 즉, '조상당세기'와 '조상지' 모심은 사람이 죽음으로서 육신은 소멸하지만 혼령은 불멸하여 자기의 동질성을 그대로 지니고 우주에 존재하면서 후손의 삶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앙이다.

개별적·혈연적 조령의 신체를 가정 내에 봉안하는 의례는 유교의 사당문화와 유사하다. 이로써 '조상당세기' 및 '조상지'와 관련된 관행과 신앙성을 유교 사당의 신주 봉안과 같은 관습의 일단으로 여기거나 유교의 조상숭배문화의 민속적 변형이라 여길 소지가 없지 않다. 더욱이 현전하는 사례에서 '조상당세기'와 '조상지'에 봉안하는 신체의 일부가 유교 제례의 신주와 그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고, 봉안의 범위가 4대 봉안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남성중심의 의례이며 그 상속권이 유교 제사상속권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등은 조상모시기를 유교 제례문화의 유습으로 여길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조상당세기'와 '조상지'가 '시준단지'와 짝을 이루며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유교의 신주와는 다른 독특한 신체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조상당세기'와 '조상지'에 대한 의례적 성격이 유교의 조령관과는 다른 조령관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에서 조상신은 '실재하는 신'이 아닌 '여재(如在)하는 신'으로 경모의 대상이다. 『예기(禮記)』의 '제통편(祭統篇)'에 "부모가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생시에 하던 봉양을 미루어 행하고 생시에

못다 한 효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祭者所以追養繼孝也)”이라 하였다. 즉 유교에서 조상신은 후손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존재가 아니고 효의 연장선상에서 경모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조상당세기’에 나타나는 조상모시기는 조상의 신체를 봉안하는 상자에 가족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삼’을 봉안하는 것이 라든가, 집문서를 비롯한 중요한 문서와 영수증을 함께 넣어두기도 하며, 혹은 큰 돈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는 그 중 일부를 조상에게 바침으로써 재운이 번창해 질 것을 기원하는 제의에서 알 수 있듯이 ‘조상당세기’와 ‘조상지’에 봉안하는 조상은 추모와 경모(敬慕)의 대상을 넘어 집안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관장하는 신으로 숭상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유교의 조령관(祖靈觀) 및 조상숭배의 의례적 성격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오히려, 혈통적 조상을 신봉해 온 ‘조상당세기’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의 제례문화가 민간의 ‘조상당세기’와 ‘조상지’ 모심에 습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2. 시준단지(세존단지)

‘조상당세기’ 및 ‘조상지’와 함께 봉안하는 ‘시준단지’의 성격을 규명하기에 앞서 논의할 문제는 ‘시준단지’·‘제석단지’·‘조상단지’ 신앙의 관계성이다. 학계에서는 이들을 동일한 신앙태로 보고 ‘조상단지’를 전국적인 통칭으로, ‘시준단지’와 ‘제석단지’를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각기 통용되는 용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준단지’·‘제석단지’·‘조상단지’는 차별성이 있다. 먼저, 동남해안지역의 ‘시준단지’ 신앙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남구(南區) 대보면(大浦面) 강사(江沙)2리(里)(새기마을)의 ‘시준단지’ ‘세존단지’ ‘시준할매’

[사례 2]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남구(南區) 장기면(長鬐面) 계원(溪院)1리(里) 황계마을의 ‘세존단지’

[사례 3] 부산시(釜山市) 기장군(機張郡) 장안읍(長安邑) 효암리(孝岩里)의 ‘시준단지’

[사례 4] 부산시(釜山市) 기장군(機張郡) 일광면(日光面) 학리(鶴里)의 ‘시준단지’

무당에 의해 베풀어지는 무속의례의 무가에서 사용되는 '세존'(불교에서 불타의 존칭으로 쓰는 말)이라는 어휘를 차용하여 가신의 신격으로 봉안한 '세존단지(시준단지)'에 있어서 '세존(世尊)'이라는 어휘(語彙)는 지방(地方)에 따라서, 개인(個人)에 따라서 '시존' '시조' '시준' '시주' 등 다양(多樣)한 변이양상(變異樣相)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음운변천상(音韻變遷上)으로 볼 때,

세존(세준)→시존→시조

↳시준→시주

위와 같이 통시적(通時的)·공시적(共時的) 변천(變遷)과 변이(變異)를 한 것이다. 이 시준의 민간신앙상 신체는 쌀을 담아놓은 단지로 이를 '시준단지'라 한다.

'시준단지'는 '조상당세기'의 혈연적 조령관과는 달리 추상적 조령관에 입각한 신앙이다. 한국 기층민의 조령관은 혈연적인 조령을 신앙시하면서 동시에 조령을 혈연적인 존재를 넘어 추상적인 신격으로 관념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인 조령관에서 '조상당세기'와 '시준단지'신앙이 짝을 이루며 형성 전승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조상의 영혼은 한편으로는 '조상당세기'에 빙의(憑依)해 사후의 존재로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며 후손을 돌보며 유대감을 지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혈연적 조령이 갖는 종교적 심성의 한계를 넘어서 자손의 번창과 풍요를 관장하는 우주적 신격으로 '시준단지'에 모셔져, 매해 성체(聖體)의 음복으로 가족의 혈연적 유대의식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을 둘러싼 제반 삶의 영역이 조상의 음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여기고 조상에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혈연적 근원에 대한 회구가 강한 민족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시준단지' 안에는 곡식-주로 쌀-을 봉안하며, 매해 수확의 햇곡식을 갈아넣고, 이전의 곡식으로는 밥을 지어먹는데, 음복의 범위는 주부 혼자이거나 가족 구성원에만 한한다. 제의는 그 집 주부가 주제(主祭)하며 제의형태는 비손형태다. 제수를 진설할 때 술이나 고기류를 진설하지 않는다. 술과 고기류를 제수로 사용하지 않는 점은 한국의 전통적 가신신앙이 전승과정에서 불교와 습합되어왔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에는 농경사회의 대모신과 곡령신앙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조상숭배문화가 면면히 흐르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삼국지」 위지 동이전 동옥저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장속 중 ‘곽 입구에 쌀을 담은 질그릇을 매달아 놓은 풍습’이 있는데, 이는 현전하는 시준단지의 원초적 형태로, 유교나 불교의 유입 이전 이미 토착적인 조령신앙의 하나로 시준단지문화가 형성, 전승되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전하는 ‘시준단지’ 신앙을 통해 볼 때, 조령의 신체는 곡물을 담은 단지가 가장 보편적이며, 가정의 재복과 자식들의 소원성취를 관장하는 여성신격으로 관념되며, 여성들이 주제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조상단지를 여성신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곡령으로 사유하는 사례 및 의례 주관자가 여성이라는 점과 제의방식이 비손의 형태라는 점은 유교와 불교의 영향으로 신명은 변화하였되, 신관과 의례행위의 전통성이 온전히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 중 조령신앙에서 나타나는 ‘단지’ ‘곡물’ ‘여성신관’의 상관성은 곧 유교 제례문화의 유입 이전의 전통적 조상숭배문화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교적 표상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주목되는 것은 단지가 여근 혹은 자궁을 상징한 것으로 ‘시준단지’의 보다 원초적인 지칭은 대모신의 자궁을 함의하는 명칭이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준단지’에 대해 새로 수확한 곡식을 갈아넣고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와 봉안했던 쌀의 상태로 길, 흉을 점치는 속식관이 대모신의 자궁에서 곡물의 신생과 재생의 도모를 꾀하고자 하는 우주창조의 원형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조상을 봉안하는 신령용기-단지-는 김알지 신화나 수로신화에서의 황금계(黃金櫃)와 금합자(金合子)가 갖는 의미와 동격이며, 유아의 시관(屍棺)으로 이용되었던 甕棺葬의 용기(단지)의 원초적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즉, ‘시준단지’ ‘세존단지’ ‘시조단지’ 등과 같은 명칭의 형성 이전에는 대모신의 신생과 재생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한 명칭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삼국유사」 소재 「가락국기」에 의하면 수로는 158세를 살고 3월 23일에 죽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그 추모제일은 거등왕(居登王)이 정한 바, 정월 3일과 7일, 5월 5일, 8월 5일과 15일로 이 제의는 신년의례가 행해지는 정월 3일과 7일, 성장의례가 행해지는 5월 5일, 수확의례가 행해지는 8월 5일과 15일에 치러져 추모제의 성격보다는 세시의례 및 농경의례의 속성이 짙다.<sup>5)</sup> 이로 볼 때 일찍이 우리 민족의 조



령관은 혈연적인 조령이라도 자손들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雜志)에 “제 이대 남해왕 3년 정월에 비로소 시조 혁거세묘를 세우고 사시(四時)에 제사를 지내되 왕의 누이인 아로(阿老)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케 했다.”<sup>6)</sup>라 하였는데, 이 때의 시조묘(始祖廟)란 종묘(宗廟)로서의 시조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족 중심의 농경제의적(農耕祭儀的) 신사(神祠)<sup>7)</sup>로 조령이 농경신으로 숭상되었으며 조령에 대한 제의를 여성이 주관한 전통을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2-3. 제석단지과 조상단지

진도(珍島) 씻김굿에서 ‘제석굿’의 제석맞이에서는 “오시드라 오시드라 천황지석 일월제석 불의제석이 내려를 왔네. 제석님이 오실적에 해가돌아 일월제석 낙산관악 제불제천 월불제석이 오실적에 명춤치 목에걸고 자손춤치 품에안고 북춤치는 팔에다걸고 산중제석이 내려를 왔네.”<sup>8)</sup>에서 보듯이 ‘제석’에는 ‘천황지석·일월제석·불의제석·월불제석·산중제석’ 등이 보이고, 또 보성군(寶城郡) 보성읍(寶城邑) ‘제석굿’의 제석맞이에서는 ‘삼불제석·칠성제석·산신제석·용신제석·길제석·당산제석·철용제석·제왕제석’ 등이 보이고 있다.<sup>9)</sup> 이 점(點)을 고려(考慮)하면, 부처[여래 如來]에 석가불(釋迦佛)[석가여래 釋迦如來]·약사불(藥師佛)[약사여래 藥師如來]·아미타불(阿彌陀佛)[아미타여래 阿彌陀如來]이라 하여 ‘불(佛)[여래 如來]’이라는 어휘(語彙)가 붙듯, ‘××제석’이라는 ‘제석’도 같은 어휘구조(語彙構造)로 그저 ‘신(神)’이라는 의미(意味)로 해석(解釋)해야 될 것이고, ‘제석’이라는 독립(獨立)된 어휘(語彙)로 쓰일 때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수명(壽命)·재복(財福)을 관장(管掌)하는 신격(神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10)</sup>

5) 황경숙, 「산상의례와 <구지가>의 성격 연구」, 『한국의 역사와 문화』 (월인, 2000), 285면.

6) 第二代 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三國史記』 雜志)

7) 김승찬, 『민속학산고』(제일문화사, 1980), 45면.

8) 지춘상 외, 진도씻김굿,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전통무용연구소, 1979), 196-197면.

9)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53-54면.

한편, 제석본풀이유형(당금애기형)의 서사무가(敍事巫歌)에 대(對)한 명칭(名稱)을 보면, 전남(全南)·충남(忠南)에서는 ‘제석굿’, 충북(忠北)에서는 ‘제석풀이’, 경기도(京畿道)에서는 ‘제석본풀이’, 부산(釜山)에서는 ‘시쥬푸리’, 경북(慶北)에서는 ‘세존굿’, 강원도(江原道)에서는 ‘시쥬굿’이라 한다. 곧 ‘제석’을 ‘세존’이라 부르기도 한다.

무속(巫俗)에서의 ‘제석’의 의미(意味)가 그러하다면, 민간속신(民間俗信)에서의 예(例)를 보면, 내방신(來訪神)인 이월(二月)의 영동할미제[風神祭]에게 비손할 때,

1) 바람지석할매요, 구름지석할매요, 일년 열두달 과연 열석달 동서남북 다  
대기도 향기가 나고 앓는 데마다 웃음꽃이 피고 두루 잘 되게 해주소.(부산지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최처자 할머니의 이령수)

2) 제석님네, 제석님네, 우짜든지 이 대접 받고 안과태평하구로 하고, 자식들  
다 채수 있고……부귀영화 시켜주고, 이 집안에 천석만석되게 농사 잘 되게 하  
고, 복 많게 해주소.(부산시 강서구 천가동 율리 최분선 할머니의 이령수)

부산지역(釜山地域)에서는 ‘영동할미’를 ‘제석할미’라 칭(稱)한다. 영동할미는 일반적(一般的)으로 바람의 신(風神)으로 각(各) 가정(家庭)의 재복(財福)·풍임(豐稔)·자식(子息)들의 소원성취(所願成就)를 확보(確保)해주는 여신격(女神格)으로 숭배(崇拜)하고 있다.

그러면 ‘조상단지’란 어떤 것인가? ‘제석오가리’나 ‘세존단지’처럼 오가리(단지) 안에 햅쌀을 넣어 한지(韓紙)로 덮고 타래실로 아가리를 묶어 안방(內室)의 시렁 위나 한 쪽 구석 높은 위치(位置)에 받침대를 만들어 그 위에 봉안(奉安)하고 있는 ‘조상단지’는 제석오가리나 세존단지와 같은 성격(性格)과 기능(機能)을 가지고 있고 제의형식(祭儀形式)도 같으나, 봉안(奉安)의 동기(動機)에 차이(差異)가 있다.

‘제석오가리’나 ‘세존단지’는 선대(先代)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종가(宗家)

10) ‘제석’에 대하여 이능화(李能和)는 불속(佛俗)에서 온 주곡신(主穀神)으로,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자손(子孫)에게 명복(命福)을 주는 신(神)으로 보고 있다.

에만 있다. 반면(反面)에 '조상단지'는 집안에 우환(憂患)이나 병자(病者)가 생겨 무당(巫堂)이나 점바치[占卜家]를 데려와 문복(問卜)을 하니, 무당(巫堂)이나 점바치[占卜家]가 어느 조상(祖上)을 모시면 우환(憂患)이 가시고, 병(病)이 치유(治癒)된다 하여 모시게 된 것이다. 이 조상단지는 종가(宗家)가 아닌 집에서도 모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봉안(奉安)하는 조상(祖上)은 기제사(忌祭祀)를 떴듯이 받아먹는 조상(祖上)이 아니라, 대체(大體)로 기제사(忌祭祀)를 받아먹지 못하는 조상(祖上)인 것이다. 예(例)를 들면, 봉안(奉安)하는 사람과 같은 가계(家系)이 되 결혼(結婚)한 뒤 사망(死亡)하여 제사(祭祀)를 받아먹지 못하는 선대인물(先代人物)—주로 여성(女性)이거나, 자기(自己) 선대(先代)의 가계(家系)에 첩(妾)으로 들어와 원(怨)과 한(恨)을 가진 채 죽어 제사(祭祀)를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여자(女子)이다. 그래서 이런 조령(祖靈)을 봉안(奉安)한 가정(家庭)에서는 '조상단지'를 '할매조상단지' '시주할매단지' '세존할매단지'라 일컫기도 한다. 엄밀(嚴密)한 의미(意味)에서는 '제석오가리'·'세존단지'와 '조상단지'에 차이(差異)가 나지만, 위에서 논급(論及)한 바와 같이 제의형식(祭儀形式)이나 제의시기(祭儀時期) 및 기능(機能)이 같으므로 '조상단지'를 그릇되게 '시조단지' '시주단지'등으로 부르고 있다.

#### 2-4. '조상당세기'와 '시준단지'의 형성과 전개

현전하는 '조상당세기'와 '시준단지'신앙의 연원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사료는 「三國志」魏志 東夷傳 東沃沮條의 다음 기사다.

그들의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 큰 나무로 꺾(擲)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10여 길이나 된다. 이것을 한쪽 머리에 문을 만들어 놓는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매장(假埋葬)을 해 놓는다. 이 시체는 겨우 몸만 가릴 만큼 흙으로 덮었다가 살이 가 썩으면 그 뼈만 추려서 이 꺾 속에 넣는다. 이리하여 온 집안 사람의 뼈가 이 한 꺾 속에 넣는다. 이리하여 온 집안 사람의 뼈가 이 한 꺾 속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①나무로 산 사람의 모양을 새겨 꽃아서 이 나무의 수효로 죽은 사람의 수를 알게 된다. ②쌀을 넣어둔 질그릇을 꺾 끝에 달아 두는 것이 역시 그 나라 풍속이다.11)(밑줄 필자)

11) 其葬作大木槨 長十餘丈 皆一頭作戶 新死者皆假埋之 才使覆形 皮肉盡 乃取骨置

당시 동옥저의 장속(葬俗)으로 유곽무관(有槨無棺)의 세골장(洗骨葬)과 가족 합장의 묘제(墓制)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속에 수반되어 ① 돌아가신 조상의 모습을 나무에 새겨 꽃아 두었을 뿐 아니라 ② 곱의 입구에는 쌀을 담은 질그릇을 매달아 두는 의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위 기록의 문맥으로 볼 때 ①과 ②는 조령과 관련된 의례 곧 조상숭배의례다. ①과 ②의 개별적 성격과 상호 관련성에 대한 해명은 우리나라 전통적 조상숭배문화를 짚어보는데 중요한 사료가 아닐 수 없다.

죽은이의 형상을 새긴 목각인형을 묘에 봉안하였다는 것은 탈신혼(脫身魂)의 사유관에서 이루어진 관습으로, 죽은이를 기념하고 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물의 기능을 넘어서 시신(屍身)을 떠난 조령이 머물 수 있는 대용물이며, 보다 본질적인 기능은 조령이 현실계를 떠나서도 산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조령의 빙의물(憑依物)인 것이다. 즉, 조상의 형상을 새겨놓은 목각인형은 조령의 신체로 이러한 신체를 묘에 봉안하는 것은 죽은 조상에 대한 추모와 경모에서 발원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조령의 신체로서 산자와 죽은이와 연계시킬 수 있는 종교적 표상물이었을 것이며, 현전하는 ‘조상당세기’의 조상 신체의 원초적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전하는 ‘조상당세기’의 조상신체의 변모과정은 이 신앙의 전통성과 전승과정에 따른 변용 양상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먼저, 현전하는 조상의 신체를 조상지(祖上紙)를 부착한 사례와 합쳐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상당세기(귀신당세기)를 모시는 가정

① 조상당세기에 한지(韓紙)를 접어 넣어 안방의 시렁 위나 장롱 위에 모시되, ㉠조상의 신위를 쓰지 않은 것[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천리와 강사리] ㉡ 한지를 고깔 형태로 접은 것[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천리]

② 조상당세기에 삼오라기·면화몽치·삼베조각 등을 넣어 안방의 시렁 위나 장롱 위에 모신 것[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천리, 함남 함흥]

槨中 舉家皆共一槨 刻木如生形 隨死者爲數 又有瓦罍 置米其中 編懸之於槨戶邊.

(2) 조상종이를 당세기에 넣지 않고 안방의 시렁 위나 선반 위에 나란히 펼쳐 얹어놓은 가정[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황계마을]

(3) 조상종이(귀신종이)를 벽에 붙힌 가정

(한지(韓紙)를 가로·세로, 각각 5-10cm·20-25cm 크기로 두서너번 접어 안방의 한쪽 벽에 붙여둔 가정)

① 조상의 신위(神位)를 쓰지 않은 것[경주시 양남면 진리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및 일광면 학리]

② 조상의 신위(神位)를 쓴 것[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와 일광면 학리]

(4) 오가리에 쌀을 넣고 모시는 가정[전남 진도군 진도읍 사정리의 '몸오가리'와 전남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의 '제석오가리']

당세기 안에 한지를 접어 넣거나 고깔 모양으로 접어 넣기와 한지를 벽에 붙이기는 '성주' '삼신'의 신체 봉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민간신앙의 일반적인 신체 유형이다. 조상신체도 이와 같은 봉안형식으로서 그 신체가 가정 내로 들어오면서 변모되어 모시게 형태일 것이며, (4)의 경우는 '조상당세기'가 '지석단지'와 습합된 형태로 전승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변용의 모습이며, (3)-②의 종이에 신위(神位)를 쓴 경우는 역사적 추이에 따른 유교의 제례문화와 습합된 형태이다. 역사적 추이에 따라, 신체의 양상이 추상적인 형태인 고깔이나 직사각형의 한지형(韓紙形)으로 변모하였으며, 장제(葬制)의 변화에 따라 그 봉안장소가 묘에서 집안으로 이동하면서 시렁이나 선반 위에 모셔지고, 당세기와 함(函)이 부수적으로 수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상의 신체를 봉안하는 유형인 (1) (2) (3) (4)의 사례가 동해안 북부에서 동남해안 지역을 거쳐 남해안 서부로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 때, 조상모시기의 신체 봉안 유형의 지역적 편차는 곧 조상모시기의 전승경로와 연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옛 동옥저 지역이었던 동해안 북부 지역의 조상당세기가 남하면서 조상지로 변모되어 시렁에 얹어 봉안되다가 경주지방을 기점으로 벽면에 부착되는 형태로 변모되어 통영지방에 까지 이르렀으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오

가리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상당세기’ ‘시준단지’ 신앙의 전승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조선중기 사회규범으로 정착하게 된 『주자가례』에 의거한 유교 제례문화의 영향이다. 외래문화와 재래문화의 통합과정에서는 그 고유한 문화 형태의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조상의 신체 유형 중 한지에 조상의 신위를 써 봉안한 사례나, 조상의 신위를 써 놓은 종이 아래에 조상의 신체를 봉안하는 사례는 유교 제례문화의 유입으로 말미암은 전통적 조상모시기의 대표적인 변용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상당세기’의 경우 봉안의 범위가 4대 봉안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상속이 유교 제사상속 체계와 동일하며 남성이 의례를 주관하는 점 등도 유교 제례문화와 습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과(槨) 입구에 쌀을 담은 질그릇을 봉안한 장속(葬俗)은 현전하는 ‘시준단지’ 신앙의 원초적 형태로서 이는 혈연적인 조령을 숭배하는 조상모시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질그릇에 봉안한 쌀은 일차적으로 고대 인류의 영혼불멸의 사령관(死靈觀)과 죽음의 세계를 현실계의 연장으로 사유하는 내세관에서 나타나는 사자(死者)의 양식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나아가 조령을 곡령(穀靈)으로 사유하는 농경사회의 추상적 조령관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전하는 ‘시준단지’는 비교적 그 원형을 온전히 간직하며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상당세기’에 비해 ‘시준단지’가 상대적으로 그 원형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은, ‘조상당세기’의 경우와는 달리 유사형태의 외래문화가 없어 문화적 변동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조상당세기’와 ‘시준단지’는 동옥저의 장속의 유혼이 될 수 있음은 동옥저의 영역이 함경도이며, ‘조상당세기’와 ‘시준단지’의 민간신앙이 함경도해역(咸鏡道海域) 어촌지방(漁村地方)으로부터 부산근교(釜山近郊)의 어촌(漁村)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보아 동옥저(東沃沮)의 문화(文化)가 해안선(海岸線)을 따라 남하(南下)하게 되고 그 문화(文化)를 수용(受容)한 결과(結果)로 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 3. 대동적 조상숭배의례로서의 헌식굿과 밥상제

학계에 소개에 된 바 없지만 현전하는 전남 해남군 북평면 묵동마을의 '헌식굿'과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당금마을과 산양읍 삼덕리 원항마을의 '밥상제'는 각 가정의 조상제의가 마을 공동체로 확대되어 행해지고 있는 사례로 주목된다. 혈연성을 전제로 하는 조상숭배의 본원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면서도 이들이 결합하여 공동체의 염원을 발원하는 대동제의로 확대 통합되는 즉, 혈연성과 지연성이 결합된 의례로 한국적인 조상숭배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묵동마을의 헌식굿은 대동적인 조상숭배제의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 민속학적 의의는 크다 하겠다. 헌식굿과 밥상제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경남(慶南) 통영시(統營市) 산양읍(山陽邑) 삼덕리(三德里) 원항(院項) 마을의 '밥상제'

[사례 2] 경남(慶南) 통영시(統營市) 한산면(閑山面) 매죽리(每竹里) 당금마을의 '밥상제'

[사례 3] 전남(全南) 해남군(海南郡) 북평면(北平面) 묵동(墨洞)마을의 '헌식굿'

일반적으로 헌식굿이라 함은 마을 공동체인 당산제나 무속제를 비롯한 민간신앙제의의 말미에 행해지는 잠귀잡신을 풀어먹이는 '거리제'를 일컫는 것이나, 전남 해남군 북평면 묵동 마을의 헌식굿은 일반 '거리제'와 달리 조상신에게 공물을 봉헌하는 의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변별성을 지닌 제명(祭名)이라 할 수 있다. 이 묵동마을의 헌식굿은 제의일시로 보아 신년제의이며 동시에 농경제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주된 대상신격은 마을주민들의 조상신들이다. 이는 어떤 특정 조상신을 지연 공동체 구성원이 숭배하는 제의와는 달리, 개별 조상제의가 그 본연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마을 구성원들로 재조직된 풍물굿패를 중심으로 지연공동체의 제의로 통합 확대되어 대동제의로 재창출된 조상숭배의례다. 앞에서 논급한 바, '조상당세기' 및 '조상지'와 '시준단지'가 개별적·혈통적인 가정의례로 자리하고 있음에 비해 헌식굿은 지연공동체의 염

원을 도모하는 공동체신앙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이다. 종교의례는 사회적 단위체의 신념의 표현이며, 그것의 기능은 단위체의 유대적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재창조하는 기제로 자리하는데 있다. ‘조상당세기’와 ‘시준단지’가 사회의 한 단위로서의 혈연집단과 혈연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기제였다면, ‘헌식굿’은 지연집단과 지연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통상 지연공동체는 혈연의식을 넘어 통합되는 단위이며, 따라서 이들 집단이 그들의 구심체로 숭상하는 신격은 혈연의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헌식굿’은 지연공동체 구성원의 모든 조상신이 지연공동체의 구심체로 통합되어 숭상되고 있는 것이다.

목동마을의 ‘헌식굿’과 같은 제의형태는 다소 축소된 형태이기는 하나 해남 지역의 당산제에서 행해지며 그 제명 역시 ‘헌식’이라 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제시하면 인근 송지면(松旨面) 산정(山亭)마을에서 행하는 ‘헌식’을 살펴보면, 이 마을 당산제는 음력 1월 14일 저녁(7시경)에 마을 중앙에 있는 당산나무에 마을에서 선정한 제주들에 의한 유교식 제의를 올린다. 당산제가 끝나면 마을 풍물굿패들이 마을의 길목들을 돌며 헌식굿을 행한다. 헌식굿을 행할 때에는 짚불을 피우며 이 때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은 자기들의 조상에게 바칠 제상을 각자 장만해 들고 짚불 주위에 진설하고는 비손한다. 한편, 경남(慶南) 통영시(統營市) 한산면(閑山面) 매죽리(每竹里) 당금마을과 산양읍(山陽邑) 삼덕리(三德里) 원항(院項)마을의 ‘밥상제’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당금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선정한 제주가 당제를 거행한 뒤,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조상에게 바칠 제상-밥상이라 칭함-을 당산으로 가져와 진설한 뒤 합동으로 조상제를 지내는데 이를 ‘밥상제’라 칭한다. 원항(院項)마을에서는 선달 그믐날 밤 장군봉에 위치한 장군당사에서 제를 모시고 난 뒤 다음날인 정월 초하루 아침 6시경에 이장이 징을 두드리며 ‘밥상제’ 시작을 알리는데, 밥상제라 칭하는 이유는 당금마을과 같으며, 이 ‘밥상제’는 벼수제, 당산나무제, 용왕제에 수반되어 행해지는 것으로 이 역시 공동적 조상제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경남 지방의 ‘밥상제’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풍물패를 중심으로 하여 대동제의로 재창출된 목동마을을 비롯한 해남일대의 ‘헌식굿’과는 달리 각 가정의 주부가 독자적으로 비손하는 이른바 합동제의에 머문다는 점에서 차이



점이 있다. 목동마을을 비롯한 인근 해남지방의 '헌식굿'과 통영지방의 '밥상제'에서 주목할 사항은 공동 조상제의의 전통이 전라도 남부지역과 서남해역 지방에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이 지방의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마한의 농경시필기시에 행한 제의에서 조상신에 대한 대동제의의 전통을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마한조(馬韓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향상 5월에 파종이 끝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이 때 사람들은 무리로 모여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과 음식을 먹었다. 그 춤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따르며 땅을 밟으며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고 손과 발을 서로 맞추는 것으로서, 그 절주는 중국의 탁무와 비슷하였다. 10월에 농사가 끝나면 또다시 그와 같이하였다.<sup>12)</sup>

마한의 5월과 10월의 제귀신(祭鬼神)은 농경사회에 있어서 곡물의 성장 리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5월은 곡물의 파종과 아울러 성장을 기원하는 시기이고, 10월은 수확을 끝내고 실질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5월의 제귀신(祭鬼神) 때 탁(鐸)과 같은 무구(舞具)를 흔들며 춘 무도의례(舞蹈儀禮)는 귀신을 받들어 곡물(穀物)의 성장 위세(威勢)와 조성(早成)의 기축(祈祝) 및 잡령(雜靈)의 구축(驅逐)을 위한 선행모의의례(先行模擬儀禮)일 것이고, 10월의 제귀신 때 행한 무도의례는 추수감사제를 떠면서 동시에 신년을 위한 구역축사(驅疫逐邪)와 농경예축(農耕豫祝)을 위한 의례일 것이다. 그렇다면 마한에서 행했던 대동제의의 의례 대상 신격인 '귀신'은 곧 '농경신(農耕神)'이며, 고대 조령관(祖靈觀)에 입각해 볼 때 이 의례의 주대상 신격인 '농경신(農耕神)'은 곡령(穀靈)으로 인식되는 조상신(祖上神)을 포괄한 신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동마을의 헌식굿은 마한지방에서 행했던 제귀신(祭鬼神)의 전통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三國志』 魏志 東夷傳 馬韓條의 다음 기록을 살펴보면,

12)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飲酒 晝夜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귀신을 믿어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것을 천군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읍이 있어 그것을 소도라 하고 그곳에 큰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sup>13)</sup>

천신제(天神祭)의 주관은 천군(天君)이 하며, 천군의 선정(選定)은 지금 지방 당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회의(洞會)를 개최하여 선정한 듯하다. 또한 나라에는 별읍(別邑)이 있어 그것을 '소도(蘇塗)'라 하고, 그 안에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한다. 즉, 마한에는 각 읍마다 천군을 두어 천신제를 올리는 것과 소도라 칭하는 별읍에 큰나무를 세워 거기에 방울과 북을 달고 귀신을 섬기는 이중적(二重的) 제의문화(祭儀文化)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에 있어서 제의를 주관하는 '천군'과는 달리 제의(祭儀) 주관자(主管者)의 위상(位相)이 그다지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소도(蘇塗)에서 귀신을 섬기는 제의가 대동제의(大同祭儀)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소도에는 큰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하였는데, 이는 제의의 성격은 물론 제의방식(祭儀方式)이 전자와 다른 변별적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귀신을 섬기는 장소인 '소도'는 성소(聖所)요, 거기에 세운 큰 나무는 우주목(宇宙木)의 상징성을 띠고, 그 나무에 매단 방울은 샤먼의 심볼로서 악귀(惡鬼)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를 냄<sup>14)</sup>으로 달아 둔 것이며, 북은 샤먼의 우주여행(宇宙旅行)을 위한 말(馬)이요 배(船)를 상징하기<sup>15)</sup> 때문에 우주목에 매단 것이다. 다시 말해 별읍의 성소에 세운 큰 나무는 귀신의 하강(下降)과 상승(上昇)의 길로, 방울은 귀신을 맞이하는 주구(呪具)로, 북은 귀신(鬼神)과 샤먼이 타고 다닐 승차물(乘車物)로 상징되는 것인 만큼, 이 제의는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의 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록에 농공시필기의 제무(祭舞)를 중국의 탁무(鐸舞)와 유사하다고 하였는데, 탁무는 쇠방울을 흔들

13) 信鬼神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懸鈴鼓 事鬼神.

14) 崔南善, 「薩滿教筭記」, 『啓明』 第19號, (1927), 34면.

15) 金烈圭, 「韓國神話源流探索을 위한 시베리아 샤머니즘 및 神話」, 『韓國民族의 起源과 形成(下)』(小花, 1996), 362면.

며 추는 춤이다. 따라서 농공시필기에 행했던 무도제의(舞蹈祭儀)는 탁(鐸)과 같은 무용구를 흔들며 춘 것으로 추정되는 것<sup>16)</sup>으로 이는 곧 소도에 세워두었던 우주목의 방울을 제무(祭舞)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도에 세워둔 우주목과 방울·복은 목동마을의 ‘헌식굿’을 비롯하여 전라도 일대에 풍물굿의 서낭기(=令旗)와 서낭기에 달아 놓는 탈(=靈)의 원초적 형태 일 가능성이 크다. 마한의 54개국에 각국(성읍국가)마다 별읍이 있어 이 별읍(소도)에 각기 대목(大木)을 세워 방울과 복을 달았다고 하였는데, 이 별읍은 각국의 중심 성역으로 여겨지며, 거기에 세운 대목은 바로 우주목인 것으로 사유되었다. 이 우주목이 현재의 마을 서낭대 또는 거릿대로 발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탈은 소도에 세워두었다는 우주목과 복과 같이 귀신을 맞이하는 제구(祭具)와 동궤(同軌)이며, 꿩과리(전라도지방에서는 굿패가 이동할 때 꿩과리를 영기에 매달기도 하며, 문굿에서는 영기를 교차한 뒤 꿩과리를 매달아 놓는다.)와 방울 역시 선신(善神)을 맞이하고 악신(惡神)을 물리치는 제구(祭具)와 동궤인 것이다. 서낭기와 탈의 제의적(祭儀的) 기능(機能)은 물론 집단무도의례(集團舞蹈儀禮)인 풍물굿의 제의적(祭儀的) 전통(傳統)은 전라(全羅) 좌도(左道)·우도(右道) 농악(農樂)에서 온전히 전승되고 있으며, 특히 목동마을 ‘헌식굿’의 풍물굿의 경우 그 원형(原型)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4. 마무리(結論)

본고에서는 한국 동남해안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전통적 조상숭배문화의 양상을 개별적 가정의례로 전승되고 있는 ‘조상당세기’와 ‘시준단지’신앙에 바탕을 둔 조상숭배의례형과 지연공동체의례로 전승되고 있는 ‘헌식굿’과 ‘밥상제’의 조상숭배의례형의 두 범주로 나누어 조상숭배의례의 형성배경과 전승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인의 독특한 조령관과 조상숭배와 관련된 의례문화의 지역적 편차를 찾아볼 수 있었다. 즉, 한국의 조상숭배문화는 다층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령을 개별적인 조령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현세 삶

16) 황경숙,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 (월인, 2000), 25면 참조.

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가신, 농경신, 마을 수호신 등 추상적 신격으로 인식하며, 조상에 대한 제의를 혈연적 집단에 한정하되, 때로는 그 본원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대동제의로 확대되어 혈연을 넘어선 지연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혈연집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교 제례문화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조령에 대한 신앙성과 의례문화가 약화된 일본의 조상숭배문화와도 변별되는 소위 한국적 조상숭배문화의 한 특징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경북 해안지역에 '조상당세기'와 '시준단지' 신앙이 여전히 공존하며 전통성을 강하게 띤 사례와 전남 해안지역에서 '헌식굿'의 원형이 잘 보존되고 전승되고 있는 사례, 그리고 두 지역의 중간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통영의 해안과 도서에서 두 문화가 모두 약화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경북 해안지역이 옛 동옥저와 인근한 지역이며, 전남 해안지역이 옛 마한지역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들 동옥저 문화와 마한문화의 전승과 수용을 고려해볼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조상숭배문화와 관련된 조상숭배문화 권역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개별적 조상숭배문화인 '조상당세기' '조상단지' 문화권으로 이는 동해안 북부지역으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동해안 남부지역을 거쳐 남해안지역으로 전승되는 조상숭배문화권과 이와는 달리 지연적 대동제의의 조상숭배문화인 '헌식굿' 문화권으로 이는 서남해안지역으로부터 남해안지역으로 전승되는 조상숭배문화권이다. 그리고 두 문화권의 접경지로 통영, 남해, 여천지역의 복합문화권역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조상숭배문화권의 가설은 보다 많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보완작업이 요구되는 것이 분명하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인 것이다.

주제어: 조상숭배, 개별적 조상숭배, 대동적 조상숭배, 조상당세기, 귀신종이, 헌식굿, 조상지, 세존단지, 조상단지, 밥상제

## 참고문헌

「禮記」

「三國志」

「三國遺事」

「三國史記」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慶尙北道篇)』, 197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南道篇)』, 1969.

김승찬, 『민속학산고』, 제일문화사, 1980.

金烈圭, 韓國神話源流探索을 위한 시베리아 샤머니즘 및 神話, 『韓國民族의 起源과 形成(下)』, 小花, 1996.

李能和, 李在崑 譯, 『朝鮮巫俗考』, 東文選, 1991.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을류문화사, 1975.

張籌根, 『韓國民間信仰의 祖上崇拜』, 『韓國文化人類學』 第15輯, 1983.

지춘상 외, 진도씻김굿,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전통무용연구소, 1979.

秋葉 隆·沈雨晟譯, 『朝鮮民俗誌』, 東文選, 1993.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예전사, 1986.

최길성, 한국 조상숭배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문화인류학』 제20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8.

崔南善, 薩滿教節記, 『啓明』 第19號, 1927.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황경숙,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 월인, 2000.

부록 - [민속 자료편]

I. 조상당세기(祖上箱子) 및 조상지(祖上紙)

[사례 1-①] 함남(咸南) 함흥(咸興)의 명문(名門) 집안인 G가(家)의 ‘조상고리’ : G가에는 주방에서 가까운 고방의 선반에는 열댓 개의 ‘조상단지’, ‘조상고리’ 4개의 ‘간지토니’와 ‘손각씨’ 합 1개를 제사지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들 ‘조상단지’와 ‘조상고리’는 가족 중에 병이 든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점복의 결과 제사지낼 것을 명하여 흑색의 유약을 바르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구운 단지 또는 버들고리에 나락·기장·조·삼베 등을 담아 봉안한 것이다. 각각의 단지 또는 고리가 하나하나 몇 대째 조부님 조모님 등으로 불리고 있다.<sup>17)</sup>

[사례 1-②] 경북(慶北) 영덕군(盈德郡) 영덕읍(盈德邑) 노물리(老勿里) 이상룡(李尙龍)씨댁의 ‘조상당세기’ : 안방 시렁 위에 ‘세존단지’ 1개에 ‘조상당세기’ 3개를 나란히 놓고 흰 보를 씌워서 모시고 있다.<sup>18)</sup>……이상룡씨는 이 당세기들에 대해서 그것이 ‘사당(祠堂)’택이라고 말했다. 이 ‘조상당세기’는 이 마을에서는 신접살림 외에는 열이면 열이 다 모시고 있어서 200호 중 150호는 될 것이라 했다. 안에는 백지(白紙)를 넣었고 글씨는 없으며, 어떤 집에서는 내외별(內外別)로 5·6개 이상을 모셨고, 내외합사(內外合祀)로 4개 이내인 경우도 있는데, 후자(後者)가 더 많아서 3분의 2정도이고, 내외분사(內外分祀)가 3분의 1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sup>19)</sup>

[사례 1-③]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북구(北區) 흥해읍(興海邑) 죽천리(竹川里)의 ‘조상당세기’ : 김영출(남, 73세)과 이상희(여, 68세) 부부의 말로는 이 마을에 ‘조상당세기’를 종가(宗家)에서는 다 모셨고, 그 당세기는 안방 시렁 위나 장롱 위의 ‘시주(시준)단지’ 옆에 모셨으며, 당세기 안에는 한지(韓紙)를 접어 넣어 신체(神體)로 삼았다. 한 가정에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는 경우 내외합사(內外合祀)하여 4개, 또는 내외분사(內外分祀)하여 8개를 모시며, 명절

17) 秋葉 隆·沈雨晟譯, 『朝鮮民俗誌』, 東文選, 1993, 172面.

18)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慶尙北道篇)』, 1974, 158面.

19) 張蕪根, 『韓國民間信仰의 祖上崇拜』, 『韓國文化人類學』第15輯, 1983, 67面.

(설·추석) 때 ‘시준단지’와 ‘조상당세기’의 아래에 제상(祭床)을 나란히 놓고, 먼저 시준 상(床)에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하되 고기는 놓지 않고 메(祭飯) 위에 숟가락 3개를 꽂고 절은 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조상당세기’ 아래에 차린 조상(祖上) 차례상(茶禮床)에는 지방(紙榜)을 써 붙이고 제물을 진설하며 각 메에 각각 숟가락 1개를 꽂고 한꺼번에 차례를 지낸다. 옛날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시준단지’가 있었으며, 자기들은 5년전에 ‘조상당세기’를 깨끗한 곳에 가지고 가서 태워버렸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조상당세기’를 ‘구신[鬼神]당세기’라고도 부른다.

**[사례 1-④]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남구(南區) 장기면(長鬐面) 모포리(牟浦里)의 ‘조상당세기’** : 이 마을에 70년을 살고 모포 원줄집 옆에 사는 정정식(남, 70세)과 이 마을 이장(里長)의 말에 의하면, 30-40년 전만 하여도 어떤 가정에는 ‘시준단지’와 더불어 ‘조상당세기’를 모셨는데, 마을에 기독교[毛浦第一教會, 毛浦長老教會]가 들어와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基督教)를 믿기 시작하면서 단지와 당세기를 없애버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사례 1-⑤]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남구(南區) 대보면(大甫面) 대천리(大川里)·강사(江沙)2리(里)(새기마을)** : 이 두 마을에서는 조상신체를 주로 당세기에 넣어 봉안하는데. 이를 ‘구신(鬼神)당세기’ ‘선대 할배·할매 당세기’라 칭한다. 당세기는 안방 선반 위나 장롱 위의 ‘시주(시준, 세존)단지’ 옆에 모셨으며, 당세기 안에는 한지를 사각형으로 접어 신체로 삼은 경우(정순애; 여, 69세, 강사2리 새기마을)와 한지를 고깔형으로 접어 신체로 삼은 경우(김진섭; 남, 78세, 대천리 노인회 회장), 그리고 명주솜과 삼오라기를 신체로 삼은 경우(강두찬; 남, 78세, 대보리 대천리)가 있다. 한지를 직사각형으로 접어 신체로 삼은 경우는 내외합사(內外合祀)형도 있고, 내외분사(內外分祀)형도 있는데, 신체를 한 당세기에 넣을 때 남자의 신체가 위로 가도록 엮는다. 김진섭 노인회장의 제보에 의하면, 예전에는 대천리에 ‘조상당세기’를 ‘시준단지’와 더불어 종가에서는 다 모셨는데, 지금은 ‘조상당세기’를 모시는 집은 더러 있으나, ‘시준단지’를 모시는 집은 거의 없다고 한다. 강사2리 박준금(여, 78세) 할머니댁에서는 몇 년 전까지 ‘조상당세기’와 ‘시준단지’를 함께 모시고 있었는데, ‘조상당세기’에 대한 제의는 기제사와 명절제사 외에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대사가 있을 경

우 간단히 제물을 진설하고 비손한다고 한다. 정순애 할머니가 모신 ‘조상당세기’ 안에는 조상신체뿐만 아니라 집문서·영수증·도장 등과 함께 돈을 넣어두었다. 이는 조상께 가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 며느리를 맞이하였을 때는, 예물을 먼저 바쳐 고할 뿐 아니라 며느리는 ‘조상당세기’에 절을 올려 예를 갖추었다고 한다. 한편, 한 번 모셔둔 ‘조상당세기’는 더러워지더라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며, 매해 설날 그믐날에 ‘조상당세기’를 내려 깨끗하게 먼지를 털어 낸 뒤 다시 봉안한다.

[사례 1-⑥] 경북(慶北) 경주시(慶州市) 양남면 하서4리 진리마을의 ‘조상당세기’와 ‘조상종이’ : 이 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상신체를 ‘조상종이라 칭한다. 지금은 ‘조상종이’를 안방 벽에 붙이는 가정이 적으나 20-30 년 전에는 장손 집에 ‘사준단지’와 함께 그 옆에 붙여 모셨다고 한다. 현재 이 마을의 이장 부친인 김장온(남, 67세)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조부가 ‘조상당세기’ 안에 오색 의복을 보자기에 싸서 넣어 모시는 것을 보았으며, 그 당세기는 잘롱 속에 항상 보관하였고, 조부가 돌아가시자 부친이 태워 없앴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마을에는 ‘조상종이’와 ‘조상당세기’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2-①]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남구(南區) 장기면(長鬐面) 계원(溪院)1리(里) 황계마을의 ‘조상’ : 이 마을에서는 조상신체를 한지를 직사각형으로 접어놓는 것인데 이를 ‘조상’이라 칭한다. 봉안하는 방식은 함에 넣지 않고 안방 벽면에 마련한 선반 위에 나란히 펼쳐 놓되, 좌측부터 차례로 윗대 ‘조상’을 봉안하며 그 옆에 ‘시준단지’를 함께 모신다. 이 때 ‘조상’의 수는 그 집에서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 수와 동일하다. 이 마을에서는 ‘조상’과 ‘시준단지’를 함께 모시는 것을 전통적 예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혹 시대적 추이에 따라 ‘조상’을 더 이상 모시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상’을 함에 넣어 달리 봉안하고 있다. ‘조상’을 모시는 시기는 돌아가신 조상의 첫 기제사 때 조상을 청한 뒤 그 날 봉안한다. 한 번 봉안한 ‘조상’은 더러워지더라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며, 제를 모시지 않게 될 경우에는 묘에 가서 태우거나 깨끗한 곳에서 태운다고 한다. ‘조상’에 대한 의례는 기제사와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지내는 고사가 전부다. 기제사 때에는 ‘조상’ 신체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지방은 따로 써 붙인다. 고사를 지낼 때에는 ‘조상’ 신체 앞에 제물을 진설한 후, 제를 올



리며 안과태평을 기원하는데, ‘조상’을 봉안하고 제의를 베푸는 일은 전적으로 그 집 대주가 주관한다.

**[사례 2-②] 울산광역시(蔚山廣域市)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구신종이’ :** 이 마을에서는 안방 시렁이나 장롱 위에 시준단지를 얹고, 그 옆에 ‘구신종이’를 벽에 붙였다. 송성나(여, 75세), 류태악(여, 75세) 두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구신종이’는 조상 삼대까지 붙이되, 내외분을 나란히 붙이는데, 왼쪽 것은 할배, 오른쪽 것은 할매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구신종이’에는 신위를 쓰지 않으며, 차례나 기제사 때 그 앞에 제상을 놓고 제물을 진설하는데, 지방을 써 붙이고 제례를 치른다고 한다. 그리고 이 종이는 설달 그믐날 주로 할머니가 바꾸며, 태어난 종이는 깨끗한 장소로 가져가 태운다고 하였다. 현재는 이 마을에 시준단지를 모시는 가정은 네댓 가구가 있는데 구신종이를 모시는 가정은 없다. 이 구신종이 모심은 30-40년 전부터 없어졌다고 한다.

**[사례 2-③] 부산시(釜山市) 기장군(機張郡) 장안읍(長安邑) 효암리(孝岩里)의 ‘귀신종이’ :** 마을에서는 조상신체를 ‘귀신종이’라 칭한다. ‘귀신종이’를 봉안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가정에서는 방의 벽에 신위 명(神位名 곧 紙榜)을 쓰고 그 밑에 신체로 한지를 접어 붙여 모셔 놓고 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귀신종이’를 안 방 좌측 벽면에 한지를 5겹으로 만든 직사각형(세로25cm, 가로 5cm)으로 만들어 벽면에 붙인 뒤 윗부분에 종이 띠를 만들어 고정시켜 놓기도 한다. ‘귀신종이’를 처음 봉안하는 시기는 장례를 치르고 난 3일 뒤에 붙이며, 첫 봉안 시에는 기제사와 동일하게 제물을 진설 하여 제를 올리며 고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때 행하는 제의에는 12번 술을 올리고 12차례 재배를 올린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신체가 더러워지면 그 해 설달 그믐날이나 정월 초하룻날 깨끗한 한지로 새로 ‘귀신종이’를 만들어 교체하는데, 교체할 때는 교체할 것을 구두로 조상에게 고하는 것 외에 특별히 행하는 의례는 없으며 전의 ‘귀신종이’는 깨끗한 곳에서 태운다. ‘귀신종이’를 봉안하는 일은 전적으로 이 집 대주가 주관한다. 명절 때나 기제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사를 지내지는 않으며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상신체에 고하기도 한다. 한편, 조상님을 모시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벽에 부착해 두었던 조상신체를 잘 거두어 깨끗한 상자에 모신 다음 조상신께 이사가는 경로를 일일이 고하면서 간다고 한

다. 예컨대, “조상님네요 여기는 강입니다. 여기는 산모퉁이입니다. 여기는 도랑입니다. 조상님 건너갑시다.”라 고한다. 그리고, 조상신 봉사가 끝나면(예컨대 사대봉사가 끝나면) 조상신체를 떼어 손 없는 방향의 맑은 장소에서 태운다. 경북지방과 달리 이 지방에서는 ‘귀신종이’와 ‘시주단지’에 대한 전승력이 강해 많은 가정에서 모시고 있으나 ‘시주단지’와 ‘귀신종이’가 함께 나란히 모셔지는 경우는 없고 약간의 공간적 차이를 두고 모시고 있다.

**[사례 2-④] 부산시(釜山市) 기장군(機張郡) 일광면(日光面) 학리(鶴里)의 ‘귀신종이’** : ‘귀신종이’는 한지를 접어만든 조상신체로 안방 벽면에 주로 부착한다. 김경훈(여, 69세) 할머니의 제보에 의하면, 예전에는 3년 탈상 후에 붙였지만, 지금은 삼우제를 지내고 난 다음 붙인다. 처음 조상신체를 붙일 때에는 기제사와 동일하게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올린 후 붙인다. 신체는 가정에 따라 조상신체를 한 뼘씩 따로 붙이거나 조상 부부를 합사하여 붙이기도 한다. ‘귀신종이’에는 조상신위를 기록하여 놓는데, 그 양식은 지방 쓰는 양식과 동일하다. 이 마을에서 ‘귀신종이’의 전승이 약화되어 지금까지 모시는 집은 많지 않다. 또한 신체를 보존하는데 있어도 각 가정마다 상이한데, 신체가 더러워지면 설날 그믐날 새로운 한지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가정도 있다. 교체하기 위해 떼어낸 신체는 깨끗한 곳이나 묘에 가서 태운다. 명절 때나 기제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며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경우에 제물을 진설한 후 조상신체 곁에 기만 한다.

**[사례 2-⑤] 경남(慶南) 통영시(統營市) 한산면(閑山面) 매죽리(每竹里) 당금마을과 대항마을의 ‘거장’** : 이삼순(여, 75세), 김인옥(남, 48세)에 의하면, 이 마을에서는 조상의 신체를 ‘거장’이라 하고 조상 모심을 ‘거장붙인다’라 칭한다. 조상의 신체를 ‘거장’이라 칭하게 된 원인은 알 수 없다. ‘거장’은 그 집 대주가 만드는데, 한지를 직사각형으로 접은 후 조상 신위를 쓴 다음 안 방의 벽에 붙인 후 ‘거장’에 때가 타지 않도록 걸장을 만들어 붙인 것이 일반적이다. 조상의 신체 수는 각 가정에서 모시는 기제사 수와 동일한데, 남자 조상신체는 위에 띠를 둘러 차별성을 드러내었으며, 조상신체는 조상의 서열에 따라 아래로 붙여 내렸다. 조상신체의 봉안은 삼우제를 지낸 다음이나 탈상 후에 간단히 제물

을 차려놓고 제를 올린 뒤 벽면에 붙여 봉안한다. 기제사를 지낼 때에는 조상신체 앞에 제상을 차려 놓고 지내며, 집안에 큰 일이 있을 경우나 영동할미제를 지낼 때에도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올린다. 조상신체는 한 번 모신 다음에는 더러워져도 새로 갈지 않을 뿐 아니라 붙이는 장소를 바꾸지도 않는다. 한편, 이사를 가게 되어 조상신체를 새로 모시게 될 경우에는 조상께 고한 후 조상신체를 떼어내어서 깨끗한 쌀을 간 함 위에 조상신체를 놓고 함을 봉한 뒤 깨끗한 보자기로 함을 싸서 운송한다. 새 집에 조상신체를 봉안할 때에는 조상신체를 모셨던 함의 쌀로 밥을 지어 제를 지낸다.

**[사례 3-①] 전남(全南) 진도군(珍島郡) 진도읍(珍島邑) 사정리(射亭里) 박강단 할머니댁의 ‘몸오가리’**: 안방 시렁 위에, 오가리에는 쌀을 넣고, 장남집(長男家)에만 있는 것이 원칙(原則)이다. 이것은 원칙적(原則的)으로 한 집에 여덟 개(個)까지 있을 수 있다.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증조부모(曾祖父母)·고조부모(高祖父母)들까지다. 5대(代)부터는 시향[時享]에 보낸다.……안 모시다가 점괘(占卦)에 “위(爲)해라” 해서 위해 놓기도 한다.<sup>20)</sup>

**[사례 3-②] 전남(全南) 진도군(珍島郡) 임회면(臨淮面) 굴포리(屈浦里) 곽(郭)노인댁의 ‘제석오가리’**: 장손(長孫)이 모시는데, 차남(次男) 이하(以下)도 분가(分家)하면 ‘성주’를 내리고, 부모(父母)가 죽고 나면 ‘제석오가리’를 모신다. 모실 때 택일(擇日)은 없고, 선달 그믐날(12月 末日)에 모시며, 죽은 해(死亡年)전, 3년(年)·4년(年) 후(後)에라도 모신다. ……예전에는 조상(祖上)모시고 살림한다는 이들은 한 개 이상 다 모셨다. 둘·셋·넷까지 있다. 넷은 사대봉사(四代奉祀)의 경우다. 오가리 속에는 백미(白米)를 넣어두며 매년(每年) 신곡(新穀)과 바꾼다. 대부분 안방 선반 위에 모셔놓지만, 더러 마루가 있으면 마루 선반 위에 모셔놓고, ‘성주동우’는 언제나 마루 바닥에 모셔놓는다. 설·대보름·추석 때 제사지내며 제상(祭床)에는 밥·수저·나물들을 놓고, 고기·술(酒)·국(羹)은 안 놓는다. 아들 딸 결혼식(結婚式) 때 아침 일찍 당골(巫堂)들이 와서 ‘제석오가리’·‘성주동우’·‘조왕(籠王)’들에게 음식(飲食)을 바친다.<sup>21)</sup>

20)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南道篇)』, 1969, 254-255면.

21)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南道篇)』, 1969, 254-255면.

II. 시준단지(世尊飯)

[사례 1]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남구(南區) 대보면(大浦面) 강사(江沙)2리(里) 세기마을의 '시준단지' : 이 마을에서는 '시주단지' '시준단지' '세존단지' '시준할매' 등으로 칭하며 '조상당세기'와 함께 안방 시렁 위나 장롱 위에 봉안한다. 신체는 단지 안에 쌀을 넣고 한지로 봉한 뒤 원새끼줄로 묶어 놓는다. 신체 안의 쌀은 매해 햇곡식으로 갈아넣는데 쌀을 새로 봉안하는 시기는 선달 그믐날이나 선달 중 손없는 날을 택일해 행하며 주부가 홀로 밤중에 정숙하게 행한다. 이 때 주부는 목욕재계 후 새옷으로 갈아입으며, 쌀을 교체할 때 이전의 쌀의 형태로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즉, 쌀이 깨끗한 상태로 소복히 올라오면 길하고 쌀이 변질되면 흉하다 한다. 이전의 쌀로는 밥을 지어 식구들끼리만 먹는다. '시주단지'에는 집안의 대사가 있을 경우 비손하며, 명절 제사 때에는 먼저, 시준 상(床)에 제물을 진설하되, 술과 비린 고기는 올리지 않으며, 메(祭飯) 위에 숟가락 세 개를 꽂아 놓는다. 이 마을 박춘금(여, 78세)할머니의 경우는 '시준단지'를 '시준할매'라고도 칭하며 시준님은 곧 부처님이라 하였으며, '시준단지'에 비손할 때는 "자손 불야 우대봉천, 살림 불야 유산시켜주소"라 이령수하며 비손 한다고 하는데, 시준님은 자손의 번창과 살림살이의 번창을 관장하는 신격이라 여겼다.

[사례 2] 경북(慶北) 포항시(浦項市) 남구(南區) 장기면(長鬐面) 계원(溪院)1리(里) 황계마을의 '세존단지' : 이 마을에서는 여러 가정에서 아직도 '세존단지'를 봉안하고 있다. '세존단지'는 '시준단지'라고도 칭하는데, 신격은 여신(女神)으로 관념하고 있었다. 주목할 사항은 이 마을 '세존단지'는 조상을 모시는 집에서는 거의 모두 조상-귀신종이-과 함께 봉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귀선 할머니(여, 80세)댁의 경우는 '세존단지'에 봉안한 쌀은 10월에 길일을 택해 새 쌀로 갈아넣는다고 하는데, 이 달에 동네에 초상이나 출산과 같은 부정이 있으면 부정이 끝난 뒤 새로 날을 잡는다. '세존단지'에 있는 쌀을 갈아넣을 때에는 주부가 식구들이 잠든 한밤중에 홀로 행한다. 예전에는 목욕재계를 한 후 새 옷으로 갈아입고는 제물을 차려 제를 올렸지만 근래에는 따로 제를 올리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집안에 우환이 있어 세존님께 고사를 올릴 경우에는 기제사와 동일하게 제물을 진설한 뒤 항시 숟가락을 세 개 꽂은 다음 비손한

다고 한다. '세준단지'의 쌀을 갈아넣을 때는 깨끗한 한지를 펴고 그 위에 전에 있던 쌀을 붓고는 깨끗하게 가린 새 쌀을 넣은 뒤 한지를 덮고 원새끼줄로 봉한 뒤 원래의 자리에 봉안한다. '세준단지'안에 넣어 두었던 쌀로는 밥을 지어 식구들이 함께 먹는다. 이 때 비린 반찬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귀잠 할머니(여, 78세) 덕의 경우도 '세준단지' 안의 쌀을 새로 갈아넣는 시기는 10월 중 손 없는 날을 택일해 행하는데, 이 데에서는 찌쌀을 넣는다고 한다. 쌀을 갈아넣는 시간은 아침식사를 하기 전으로 주부가 목욕재계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먼저, 세준할머니께 밥·나물·정화수 등을 진설하여 재배한 뒤, 단지를 내려 한지 위에 전에 넣어 두었던 쌀을 붓고는 새 쌀로 갈아넣는다. 새 쌀을 갈아넣은 후 '세준단지'를 최귀선 할머니 덕과 마찬가지로 봉한 뒤 봉안하며, 이전의 쌀로는 밥을 지어 식구들이 함께 음복한다.

**[사례 3] 부산시(釜山市) 기장군(機張郡) 장안읍(長安邑) 효암리(孝岩里)의 '세준단지' :** 박상자할머니(여, 66세)는 '세준단지' 모시는 것을 '세준님 모시기'라 칭한다. 이 가정에서는 '세준단지'를 100여년 전부터 모시기 시작했으며, 시어머니로부터 대물림 받아 지금까지 모셔오고 있으나, '세준단지'를 모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가정의 '세준단지'는 지름 25cm의 백자 항아리로 안에는 세준님의 신체인 쌀이 담겨 있고, 한지로 덮개를 만들어 씌운 다음 원새끼줄로 봉하였으며, 그 위에 사발을 덮어 안방 장롱 위에 모셔 놓았다. '세준단지'에 쌀을 봉안하는 날짜는 대개 정월 그믐날이며,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인 자정 무렵에 주부가 홀로 정숙히 행한다. 쌀을 봉안할 때에는 먼저 주부가 목욕재계를 한 후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봉안했던 곳에서 '세준단지'를 내려 깨끗한 종이 위에 쌀을 쏟아 붓고는 새로 준비한 쌀로 갈아넣는다. '세준단지' 안의 쌀을 갈 때 쌀의 상태로 가정의 길·흉을 점치기도 하는데, 그 해 집안에 재수가 좋으면 쌀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쌀이 불어 '세준단지' 위까지 소복이 올라오고, 그 반대로 그 해 재수가 좋지 않으면 쌀에 벌레가 생기거나 쌀이 변질된다고 한다. 쌀을 갈아넣고 나면 주부가 세 번 절을 한 뒤 안방의 장롱 위에 봉안한다. 이 때 제물을 진설하거나 비슨은 하지 않는다. '세준단지'를 봉했던 한지와 원새끼는 깨끗한 곳에서 태우며, 이전에 봉안했던 묵은 쌀로는 밥을 지어먹거나 단술을 만들어 먹는다. 밥을 지어먹을 때에는 비린 반찬

을 피하며, 가족끼리 먹는다. 만약, 그 달에 집안 부정(초상이나 출산)이 생기면, '시준단지' 안의 쌀은 새 쌀로 갈아넣되, '시준단지'에 있던 쌀은 사람들이 먹지 않고 깨끗한 바닷가에 버린다. 그런데, 불안하고자 하는 달에 마을 부정(마을에 출산이나 초상 등 굿은 일)이 생기면 '시준단지'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1년 더 묵힌다고 한다.

**[사례 4]** 부산시(釜山市) 기장군(機張郡) 일광면(日光面) 학리(鶴里)의 '시준단지' : 김경훈(여, 69세) 할머니의 경우는 '시준단지'를 할머니 때부터 모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시준단지'는 일명 '시준할매'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 신격을 가정의 살림살이와 자식들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안가태평을 도모해주는 신격으로 관념하며 항시 이 신에게 자식들의 소원성취를 기원한다고 한다. 이 가정의 '시준단지'는 지름 20cm의 흑색 항아리로 안에는 시준님의 신체인 쌀이 담겨 있고 한지로 덮개를 만들어 씌운 다음 원새끼줄로 봉안하였으며 그 위로 한지를 길게 덮어 안방 우측 벽면에 따로 만든 선반 위에 모셔놓았다. '시준단지' 옆에는 작은 종지에 소금을 담아 잡귀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준단지'에 쌀을 봉안하는 시기는 선달 그믐날 자정 무렵이며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주부가 홀로 정숙히 행한다. 쌀을 봉안할 때에는 먼저 주부가 목욕재계를 한 후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봉안했던 곳에서 '시준단지'를 내려 깨끗한 종이 위에 쌀을 쏟아 붓고는 새로 준비한 깨끗한 쌀로 갈아넣는다. 쌀을 갈아넣을 때에는 특별한 의례행위를 행하지 않으며 깨끗한 한지로 다시 봉하여 원래 장소에 봉안한다. '시준단지' 안의 쌀을 갈 때 쌀의 상태로 가정의 길·흉을 점치기도 하는데, 그 해 집안에 재수가 좋으면 쌀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쌀이 붙어 시준단지 위까지 소복이 올라오나, 그 반대로 그 해 재수가 좋지 않으면 쌀이 변질된다고 한다.

### Ⅲ. 밥상제(飯床祭) 및 헌식굿(獻食祭)

**[사례 1]** 경남(慶南) 통영시(統營市) 산양읍(山陽邑) 삼덕리(三德里) 원항(院項)마을의 '밥상제' : 이 마을의 부락제는 선달 그믐 밤 자정 경으로부터 새벽 4시까지 마을의 진산(鎭山)인 장군봉에 건립된 산신당과 장군당에 가서 부락제를 지낸 뒤, 정월 초하룻날 새벽 6시경부터 9시경 사이에 마을 입구에 세워진 벽수와 당산나무 아래 및 마을회관 앞 바닷가에서 밥상제를 지낸다.(마을

회관 앞 바닷가에서 지내는 밥상제를 용왕제라 한다.) 제의의 격식은 산신제와 장군당제는 유가식으로 행하며, 밥상제는 각 가정에서 제물을 차려와 비손 형식으로 제를 올리는데, 한 가정이 세 곳(벽수·당산나무·바닷가) 가운데 한 곳을 택해 그 곳에 가서 행한다. 벽수 앞과 당산나무 앞에서 제의에 올린 제물은 각자 자기 조상에 대한 제의이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가져와 음복하고, 용왕제의 제물은 마을회관으로 가져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복한다.(제보자: 문동남-남, 47세)

**[사례 2] 경남(慶南) 통영시(統營市) 한산면(閑山面) 매죽리(每竹里) 당금마을의 ‘밥상제’ :** 이 마을에서는 원래 이웃마을인 대항마을에 소재한 장군바위에서 대항 제주와 함께 당제를 거행해왔으나, 20여 년 전 대항마을의 당제가 폐지되고 난 후부터는 독자적으로 당제를 모시고 있다. 음력 정월 초삼일 날 새벽에 당제를 모신다. 제사지내는 장소는 마을 중앙의 배신대(별신대)가 있는 성역과 바닷가인데, 배신대가 있는 곳만 ‘당산’이라 칭한다. 제의의 차례는 정월 3일에 산신제-밥상제-용왕제를 지내고, 보름에 거릿대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먼저 마을에서 선정한 제관이 제의 당일 오전 5시-6시 경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올린 다음 철상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각자 제물을 장만한 제상을 들고 나와 배신대 앞에 진설한 후 제를 올리는데, 마을 사람 각자가 마련한 제상을 ‘밥상’이라 칭하고 제의를 ‘밥상제’라 칭한다. 밥상제는 당산신에 대한 제의이자 마을 주민들의 조상신에 대한 제의라고 한다. 밥상제를 지내고 난 다음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갯가에 새로 밥상을 들고 나가 용왕제를 지내는데, 이 때 제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당제는 유가식으로 거행하고, 밥상제는 비손형식으로 거행한다. 당제를 지낸 제물을 마을회관으로 가져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음복하며, 밥상제의 제물은 각자의 집으로 가져가 식구들이 함께 음복한다.(제보자: 이삼순-여, 75세)

**[사례 3] 전남(全南) 해남군(海南郡) 북평면(北平面) 묵동(墨洞)마을의 ‘헌식굿’ :** 묵동마을에서는 음력 1월 14일에서부터 1월 15일에 걸쳐 마을 공동제의를 거행하는데, 이를 ‘헌식굿’이라 칭한다. 헌식굿이란 통상 마을 공동제이나 무속제에서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거리굿을 지칭하나, 이 마을에서는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협의의 의미를 넘어서 조상신에게 제물을 봉헌하여 위무하

고 마을 공동체의 염원을 기원하는 조상제의를 지칭한다.

현식굿의 주 대상신은 이 마을 주민들의 조상신이며 제의의 방식은 풍물굿으로 이루어진다.

현식굿을 거행하기 앞서 마을회의를 통해 득주를 선발하는데, 득주는 굿물을 제작 보관하는 일을 책임지며 굿패들이 원활히 굿을 준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마을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굿물 중 하나인 고깔을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다. 제의 1주일 전 득주집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고깔에 꽃을 담배꽃을 제작한다. 종이를 접어 모양을 낸 뒤 염색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준비된 담배꽃은 1월 14일 오전에서야 비로소 그 형태를 온전하게 펼쳐 고깔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꽃피운다’라 한다. ‘꽃피우기’가 끝나면 마을 당산나무(사장나무라고도 칭함. 예전에는 4그루의 당산나무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 있다)와 마을 입구에 위치한 남근석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 뒤, 현식굿을 거행하는 제장인 마을회관 앞 공터에 황토를 뿌린다.

1월 14일 밤 10시경이 되면 ‘미영부르기’를 한다. 미영부르기란 영(靈)부르기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날 모시고자 하는 조상신들을 청하는 의식이다. 미영부르기는 먼저 굿패들이 득주집으로 모여 굿을 치면서 시작된다. 이 때 굿패들은 평복 차림을 한다. 득주집에서 굿을 친 뒤 굿패들은 미영부르기를 행하는 마을 입구(이 마을의 외부로 향한 길은 동서로 이어져 있는데, 이 중 서쪽의 길목을 입구라 하고 동쪽의 길목을 출구라 관념하고 있다.) 고갯길인 독백이로 굿을 치면서 행진한다. 독백이에 이르면 짚불을 놓은 뒤 짚불 주위를 돌며 굿을 치는데 이 때 상쇠는 “미영아”를 세 번 외친 뒤 다음날 제의를 거행할 것을 고하고 많이 오셔서 제사를 받고 복을 내려줄 것을 청하는 이령수를 한다. 굿은 짚불이 다 탈 동안 행하며 제의를 마친 뒤에는 마을회관 앞 제터와 당산나무 앞에서 굿을 친다.

1월 15일 아침 굿패들이 득주집으로 모인다. 굿패들은 굿물을 제대로 갖추어 입고 영기-서낭기-에는 탈(영)을 매단다. 이 날 굿패를 이끄는 이는 상쇠가 아니라 대포수-대장군이라고도 칭함-다. 대포수가 풍물굿을 이끄는 우두머리로 제사장으로 역할하는 것은 풍물굿의 원형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예로 아직도 전라도 일대 풍물굿에서 그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풍물굿에서 대포수가



잡색으로 치부되어 가는 과정은 곧 풍물굿이 제의에서 놀이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들어내는 과정으로써 아직 전라도 지역의 풍물굿의 본래의 제의적 성격이 잘 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굿패는 영기- 상쇠- 부쇠- 징수 - 장구- 벽구- 잡색 순으로 대열을 이루는데, 대포수는 이 대열을 통괄하는 인물로 굿패의 대열을 앞서거나 뒤따르면서 굿의 진행과정을 통괄한다. 대포수가 이끄는 굿패들은 먼저, 당산굿을 친 뒤, 마을회관을 비롯하여 각 가정을 돌며 지신밟기를 한다. 지신밟기는 저녁 무렵 끝이 나는데,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밤 10시경이 되면 마을회관 앞에 모여 본격적인 현식굿을 거행한다. 현식굿의 제물은 주민들이 각자 자신의 조상신께 바칠 제물을 준비하여 진설한다. 각 가정에서는 제의당일 새벽에 마을 뒷산의 불당골에 위치한 공동샘에서 물을 길어와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의 종류는 기제사와 동일하며 제물은 주로 큰 대야에 진설한 뒤 그 집 주부가 머리에 이고 제터로 나가 진설하는데 그 방향은 '미영부르기'와 마찬가지로 서쪽 마을 입구를 향하게 한다. 각 가정에서 내어오는 제상을 현식상이라 칭하는데, 현식상은 해가 진 뒤에야만 진설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제상을 원하는 장소에 진설하기 위해 앞다투어 제상을 내어오기도 한다. 제물을 진설할 때에는 짚을 깔고 그 위에 제물을 담은 대야채로 덮어 놓는다. 마을 주민들이 제상을 모두 진설하면 굿패가 그 앞에서 굿을 치며 마을 주민들은 굿패 뒤로 둘러싸서 굿에 참여한다. 현식굿의 사제자는 굿패의 우두머리인 대포수다. 굿을 치는 동안 대포수는 각 현식상마다 술을 올리는데, 이를 세 차례 반복한다. 한차례 술을 올리고 나면 판굿을 벌이는데 이 때 마을주민들의 집단가무도 병행된다. 판굿은 단순한 여흥적 놀이가 아니라 오신(娛神)적 기능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판굿에서는 도둑잡이 연행을 한다. 연행의 내용은 상쇠의 쇠를 훔친 도둑인 대포수가 죽음에 이르면 마을 주민들은 대포수의 주검을 어깨에 메고 애도한다. 이 때 영기에 매달아 놓은 탈을 마을 주민 중 여성의 머리에 씌워 곡하게 한다. 도둑잡이 연행이 끝나는 것으로 현식굿은 마무리된다. 이 마을의 도둑잡이 연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둑을 잡는 과정과 도둑에 대한 징치가 이 연행의 핵심이 아니라 대포수가 죽음으로써 상쇠에게 잃었던 쇠를 돌려줄 수 있다는 다분히 우주창조적 드라마를 재현하는데 그 본원적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순환적 시간관에 입

각할 때 새로운 시간과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가능하며 죽음으로써 부활하는 재생적 순화구조속에서 관념된다. 이에 제의를 마친 대포수의 죽음과 되찾은 상쇠의 쫓가리는 신년의례의 일환으로 거행되는 헌식굿의 제의적 의미를 극적으로 재현한 드로메나(dromena)인 것이다. 도둑잡이가 끝나고 나면 상쇠가 영기에 매달아 놓았던 탈-영(靈)-을 손에 들고 굿패들을 씻기는 정화의례를 행한다. 이 때 마을 주민들은 각자 마련해온 헌식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며 뚝패들은 상쇠의 씻김의례가 끝나면 짚불을 뛰어 넘어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굿패들의 씻김의례를 마친 뒤 상쇠는 짚불의 불로 탈을 태운 뒤 굿을 파한다. (2000년 1월 14일- 15일, 2001년 1월 14일- 15일 현지조사)

<Abstract>

## A Study on the Cultural Aspects of Ancestor Worship in Korean Southeastern Seaside District

Whang, Kyung-Suk

This study focuses on the cultural aspects of ancestor worship in Korean southeastern seaside district which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individual family rite("Geosangdangsegi" and "Sijundanji") and the regional community rite("Hunsikguk" and "Babsangje"). On the basis of these two categories, we will study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the ancestor worship rite.

We can see that korean take a particular conception of their ancestors and the spiritual being and that there are som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rite for ancestor worship. The culture of their ancestor worship has multi-leveled structure. They think of their ancestor and spirits as individual being and at the same time as abstract spirit beings, that is, family spirit, farming spirit, and community guardian spirit which control the affairs of this present life. The rite for ancestor is limited to a blood relative, but in some cases extends to the communal ritual which includes regionalism beyond the blood relative.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culture of Confucian rite that fails to get out of blood relative and from that of Japanese ancestor worship rite that is short of worship for individual ancestor and spirit.

We still look for "Geosangdangsegi" and "Sijundanji" at the coastal area in Gyeongbuk, and "Hunsikguk" at the coastal area in Jeonnam. Futhermore, these two culture is handed down vaguely at the seaside and islands of

Tongyoung, the middle area of Gyeongbuk, and Jeonnam. Judging from the fact that Gyeongbuk, was situated in the vicinity of ancient East Okjeo and Jeonnam was ancient Mahan, we can say the culture of Gyeongbuk and Jeonnam is the reception and the transmission of the culture of East Okjeo and Mahan.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demarcate the area which has similar features in ancestor worship culture. One culture area is that of individual ancestor worship("Geosangdangsegi" and "Josangdanji"), which includes from Northern and Southern area of the East Sea to the South Sea area. The other is the culture area of communal ritual from Southwestern Sea area to South Sea area. And the area of Tongyoung, Namhe, Yecheon is classified into the borderland of mixed culture.